

■ 주요 뉴스: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전주 대비 감소 증시에서는 기술주 불안 증폭

- 미국 트럼프, 중국 방문 앞두고 기술규제 보류. 러시아는 미국에 경제 협력 제안
- 영국 4/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하회. 영란은행 부총재는 금리인하 기대 피력
- 일본 외환당국, 환율에 경계감 유지. 글로벌 헤지펀드의 엔화 강세 베팅은 증가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AI의 여타 산업 잠식 우려 등으로 위험자산 선호 약화

주가 하락[-1.6%], 달러화 강세[+0.1%], 금리 하락[-7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AI 공포 확산에 소프트웨어 관련주 매도 증가하며 하락
유로 Stoxx600지수는 일부 기업의 실적 부진, 미국 증시 영향 등으로 0.5%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간 실업급여청구 감소 등 고용 안정 신호로 소폭 상승
유로화 가치는 약보합, 엔화 가치는 0.3%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양호한 30년물 압찰 수요, 1월 소비자물가 전망 등이 배경
독일은 주가 하락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강화 등으로 1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440.7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442.2원, 0.14% 상승). 한국 CDS 강보합

		2/12일	2/11일	전일대비			2/12일	2/11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832.8	6,941.5	-1.57%	국채 금리 10y	미국	4.10%	4.17%	-7bp
	유럽	618.52	621.58	-0.49%		독일	2.78%	2.79%	-1bp
	중국	4,134.0	4,132.0	+0.05%		영국	4.45%	4.48%	-2bp
	일본	57,640	휴장	-0.02%	CDS 5y	한국	22bp	22bp	+0bp
	한국	5,522.3	5,354.5	+3.13%		중국	43bp	42bp	+1bp
	달러지수	96.91	96.83	+0.07%	위험 지표	EMBI+	-	260	-
환율	유로화	1.1871	1.1872	-0.01%		VIX	20.82	17.65	+17.96%
	엔화	152.74	153.26	+0.34%		WTI유	62.84	64.63	-2.77%
	위안화	6.9017	6.9121	+0.15%	원자재	구리	577.7	596.6	-3.16%
	원화	1,440.2	1,450.1	+0.69%		금	4,922.2	5,084.4	-3.19%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주간 신규실업급여, 전주 대비 감소. 증시에서는 기술주 상승 불안 증폭

- 2월 1주차 신규실업급여는 22.7만건을 기록하며 예상치(22.2만건) 상회. 다만 전주(23.2만건)에 비해서는 감소. 전문가들은 혹한 등의 겨울 날씨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진단하고, 이를 감안한다면 노동시장이 명백한 고용 둔화 신호를 보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HFE). 연속 실업급여청구는 186.2만건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2.1만건 감소
- 1월 기준주택판매(연환산)는 391만건으로 전월(427만건) 대비 큰 폭 감소. 양호한 임금 상승률 및 모기지 금리 하락 등 전반적인 주택구매 여건은 개선되고 있으나 공급 부족, 혹독한 추위 등이 주택판매를 저해. 부진한 거래 속에서도 공급 부족 등으로 기준주택의 중위 가격은 전년동월비 0.9% 상승
- 한편, 이날 증시에서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3대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S&P500 -1.1%, 나스닥지수 -1.8%). 특히 기업의 수익성 대비 AI 관련 투자가 과도하다는 우려, AI의 발전으로 소프트웨어 업체 등 특정 산업의 기업이 큰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 등이 투자자의 매도 심리를 자극
- 일부에서는 AI 및 기술주 상승세에 대한 전망이 3년 전 강세장이 시작된 이후 가장 불확실한 국면이기에 이를 일시적인 어려움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The Sevens Report). 또한 AI 열풍이 AI 공포로 바뀌고 있으며, 이러한 모습은 인터넷 관련주의 붐 이후 거대한 버블 붕괴를 겪었던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는 의견도 제시(Yardeni Research)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트럼프, 중국 방문 앞두고 기술규제 보류. 러시아는 미국에 경제 협력 제안

-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핵심 기술규제를 대거 보류. 이는 4월 트럼프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의도로 추정.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 한편 블룸버그는 러시아가 러-우 전쟁 종식의 일환으로 포괄적 경제 협력을 제안했다고 보도. 이는 기존의 脫달러화 정책 포기 및 달러화 시스템 복귀, 에너지 및 원자재 분야 협력, AI 및 원자력 분야 협력 등을 포함

- **Citi, 미국의 인플레이션 위험 과소평가. Standard Chartered는 비트코인 전망 하향**
 - Citi의 벤자민 월트셔 스트래티지스트는 시장이 미국 인플레이션에 대해 안일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소비 회복력 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
 - Standard Chartered는 비트코인의 연말 가격 전망치를 15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낮추고, ETF 자금 유출과 거시경제 여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 또한 비트코인이 일시적으로 5만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첨언
- **영국 4/4분기 GDP 성장률, 예상치 하회. 영란은행 부총재는 금리인하 기대 피력**
 - 작년 4/4분기 GDP는 전기비 0.1% 증가하여 예상치(0.2%) 대비 저조. 기업투자 축소 및 서비스업 부문 활동 정체 등이 주요 원인으로 거론. 시장에서는 민간부문의 부진한 경제활동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Capital Economics)
 - 영란은행의 브리든 부총재는 경제 성장 둔화 대응을 위해 4월까지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 향후 인플레이션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
- **중국, EU産 유제품에 관세 부과. 보복 조치 성격으로 무역갈등 심화될 소지**
 - 상무부는 13일부터 EU産 수입 유제품에 11.7%의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 이는 EU의 자국産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고려한 보복 조치로 추정. 일부에서는 양측의 무역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고 전망
- **일본 외환당국, 환율에 경계감 유지. 글로벌 헤지펀드의 엔화 강세 베팅은 증가**
 - 재무성의 미무라 차관은 계속해서 엔화 환율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미국과 긴밀한 연락도 유지한다고 강조. 블룸버그에 따르면, 최근 글로벌 헤지펀드의 엔화 강세 베팅이 늘면서 엔화 환율이 안정
- **세계에너지기구(IEA),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 하향. 유가 상승 등을 반영**
 - 금년 글로벌 원유 수요가 일일 85만 배럴 증가를 나타낼 것으로 평가. 이는 이전에 비해 일일 8만배럴 낮은 수준으로 최근의 유가 상승 및 경제 불확실성 등을 반영. 또한 공급우위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관측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2/13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1월 소비자물가지수, 유로존 4/4분기 GDP, ECB 권도스 부총재 발언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그린스펀 교훈의 오해, 생산성 붐의 인플레이션 영향은 불확실 - Financial Times

(The real Greenspan lesson for Warsh on inflation)

-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는 90년대 생산성 붐 덕에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했고 그린스펀이 금리 인상을 억제할 수 있었다고 주장. 그러나 실제로는 1999년 연준은 금리를 인상했고, 물가도 '01년 경기침체 전까지 상승.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생산성이 아닌 통화정책이 결정하며,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은 가계 저축 감소와 기업 투자 확대로 중립금리 상승 요인
- 물론 공급 확대가 물가를 억제할 수도 있지만, 기대 형성으로 수요가 먼저 증가하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어 단기 방향은 불확실. 현재 AI 기대가 먼저 주가와 투자에 반영돼 수요를 끌어올리는 상황. 실제 생산성 붐이 오더라도 물가 안정을 위해 연준은 오히려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이 진짜 교훈

■ 케빈 워시 체제의 연준, 수익률곡선 스티프닝 심화 등을 초래할 소지 - Financial Times

(Reflections on (Fed) regime change)

- 연준의 워시 체제 전환 이후와 관련된 다양한 통화정책 의견이 제기. 이는 ▲파월 의장보다 금리 측면에서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 시행 가능성 ▲기존 예상 대비 큰 폭의 대차대조표 축소 등 크게 2가지로 함축. 이러한 의견이 현실에서 반영된다면 수익률곡선 스티프닝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
- 그리고 이는 글로벌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 연준이 보다 완화적인 정책을 시행한다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높아질 것이며, 다른 국가들도 수익률곡선의 스티프닝 심화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 또한 워시 지명자는 연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 부정적인데, 이는 주가 폭락 시 안정을 위한 개입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의미

■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점유율 하락, 경제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소지 - 블룸버그

(Global Trade Is Leaving the US Behind)

- 트럼프 관세정책 시행 후 세계 각국은 직접적인 보복보다는, 對美 의존도 축소 등으로 선회. 이로 인해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점유율 하락이 가속화. 여타국의 미국 의존 축소는 미국이 당초 원했던 결과이나, 궁극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
- 미국 제외한 여타 국가들의 새로운 무역협정과 중국의 영향력 강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패권국으로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 또한 내부적으로도 가계가 관세인상의 부담을 대부분 감당하여 경제 비효율성이 높아질 우려

■ **미국 가계의 부채 문제, 고소득층 확산 등으로 이전보다 심화될 소지 - WSJ**

(Americans With Higher Incomes Are Starting to Fall Behind on Payments)

- 최근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상담기관에 의뢰하는 내방객의 평균 연소득과 무담보 부채 규모는 각각 7만달러, 3.5만달러인데, 이는 팬데믹 이전(각각 4만달러, 1만달러)보다 가계 부채 부담이 증가했다는 의미. 아울러 기존 상담 고객의 연체 건수가 늘어나고, 고소득층 문의도 증가하는 이례적 현상 발생. 이러한 현상은 재정적 어려움이 저소득층에서 고소득층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
- 이는 경제 호황을 제시하는 여타의 지표들과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의가 요구. 4/4분기 가계 부채 연체율이 4.8%로 '17년 이후 최고치인데, 재정적 완충 수단이 바닥을 보이면 관련 충격은 점진적 형태가 아닌, 수직적 모습을 나타낼 소지(Consolidated Credit)

■ **미국의 높은 주택 가격, 구매 예정자의 소비·노동·투자 패턴에 악영향 초래 - 블룸버그**

(Unaffordable Housing Impacts How Americans Consume, Work and Invest)

■ **미국 회사채 가격 급등, 무분별한 수요 증가에 기인. 신용 우려도 증폭 - Financial Times**

(Rally in corporate bonds prompts 'bubble' fears)

■ **미국 빅테크의 회계 투명성 결여, 감가상각 등의 판단에 맹점으로 작용할 우려 - WSJ**

(Big Tech Accounting Creates a Blind Spot in the AI Boom)

■ **AI 산업, 혁신적이지만 수익 불확실성 등으로 버블 위험 상존 - 블룸버그**

(AI can be transformational and still be a bub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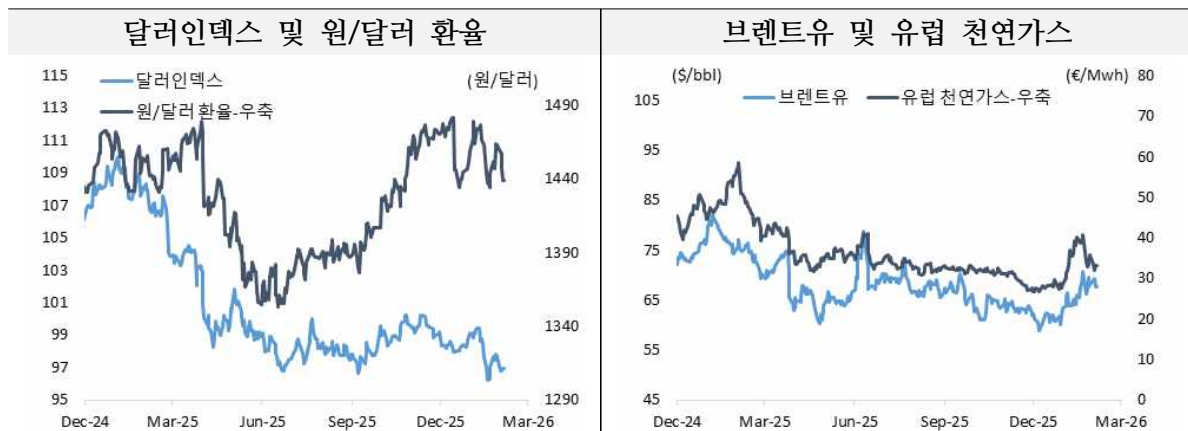
■ **유럽 각국의 경제개혁 시도, 저성장 등 현실 문제를 자각한 적절한 대응 - WSJ**

(Hurrah! Europe Is Fighting Over Economic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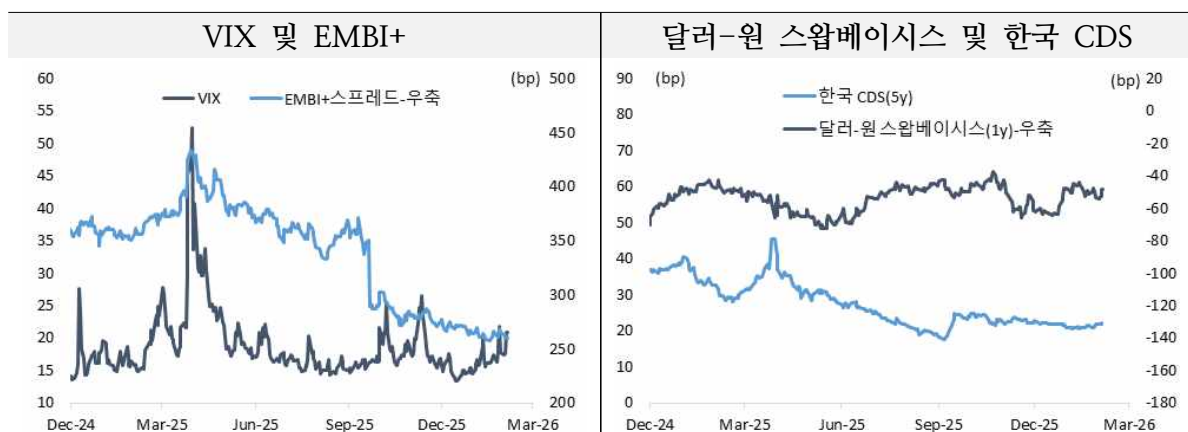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